GOYANG HEROES

그라운드를 누비는 영웅군단 **고양히어로즈**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에 힘찬
타격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른 아침부터 연습에 매진하는
고양히어로즈 선수들의 모습에서 더 높은
도약을 향한 의지가 느껴진다.
냉기가 채 사라지지 않은 그라운드
위를 뜨거운 훈련 열기로
채워가는 고양히어로즈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BASEBALL CLUB

그라운드를 수놓은 열정

고양히어로즈는 고양특례시의 퓨쳐스리그 프로야구단이다. 지난 2019년 고양시로 연고지를 이전한 고양히어로즈 50여 명의 선수들은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에서 슈퍼스타를 향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퓨처스리그는 신인 선수 발굴·육성, 부상선수 재활훈련 등에 힘쓰는 KBO 2군 리그다. 작년 시즌 고양히어로즈는 퓨처스 북부리그전에서 5할 승률을 기록했고, 타이틀 수상자도 3명이나 배출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톡톡히 기록했다. 올 시즌에서는 북부리그 상위 랭크는 물론 KBO 리그 1군 활약 선수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전 10시, 개인 훈련을 끝마친 선수들이 팀 훈련을 위해 그라운드에 들어서기 시작한다. 초록색 잔디 위 버건디색 유니폼이 유독 눈길을 끈다. 고양히어로즈의 상징색인 버건디는 '열정'의 의미가 담긴 색상이다. 팀 컬러에 걸맞게 고양히어로즈는 매년 열정적으로 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정성을 다한다. 오는 4월 개막하는 퓨쳐스